

文化行事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分析

경주지역에 대한 애드-혹 소득승수 추정을 중심으로

Impact of Cultural Events on Local Economies:
An Income Multiplier Analysis of Kyongju Exposition*

金奎鎬**

Kim, Kyu-Ho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economic impacts of a cultural event, the 2000 Kyongju World Culture Exposition on the Kyongju economy. Along with a strategy maximizing the local spread effects, author analyzes tourism multipliers effect of the cultural festival with interviewing event visitors, residents and shop keepers who were involved with the Exposition. Based on Keynesian ad hoc multiplier model author shows that the mean value of tourism multipliers for various types of accommodation was 0.515 while the multiplier of those relying on budget accommodations such as inns and unfurnished private accommodations was as high as 0.584 and that of visitors accommodated in furnished resort condominiums was the lowest. Based on these results, author arguably maintains that a cultural event would be better held in or near the downtown area where accommodations, restaurants and other facilities are agglomerated so long as to maximize the economic effect to the economy while preventing leakage effect.

핵심용어: 경제적 효과, 관광소득승수, 소비지출구조, 소득발생율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1년도 선도연구자 지원사업(과제번호 C00411)에 의해 이루어졌음.

** 경주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개발학전공 부교수. E-mail: khkim@kyongju.ac.kr

I. 序 論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문화행사(mega-events)가 역사문화도시에서 개최될 필요성은 최근 들어 지방 그 자체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¹⁾ 즉 특정 장소와 주민, 지역 산출물, 생활양식 등에 결부된 상징과 기호를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 경제학적(cultural economy) 관점에서 지방의 상품화는 지역의 동식물, 경관, 사적지, 문학작품, 드라마, 시각적 예술, 민속, 수공예품, 언어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자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Kneafsey, 2001: 762-763).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침체된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인력개발 계기로 활용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 의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상품화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Fayos-Sola, 1998: 243). 특히 경주지역과 같이 역사문화도시에서는 관광수요변화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 경우, 관광활동이 쇠퇴하여 지역경제도 침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베니스(Venice)를 대상으로 관광지 생애주기에 대한 진화론적 모형(the evolutionary models)을 통해 역사문화도시에 초래될 수 있는 관광개발의 악순환(vicious circle) 문제를 제기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Russo, 2002).

그러나 문화행사에 대한 의미와 기대가 높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문화행사에 대한 주민인식에서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적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규호, 2001: 128). 이러한 점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경제적 편익보다 조세부담증가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의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

1)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0여일 동안 8개 부문에 모두 54개 행사가 진행되어 총 관람객 175만명(외국인 방문객 13만 4,000명 포함)이 방문하였고, 행사를 위한 예산도 총 337억원으로 대규모 문화행사이다. 행사개최와 관련된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제1회 행사는 총 404억원을 책정하였고, 제2회 행사에는 행사운영 150억원, 시설물 설치 67억원, 임차·법인운영 56억원, 시가지단장에 15억원으로 총 337억원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28).

제적 효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ilman & Pizam, 1988: 191). 결국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 반면에, 문화행사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없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98년에 355억원을 지출하였고, 2000년 행사에서는 337억원이 지출된 행사이다.²⁾ 또한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후 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행사까지 주·부제와 행사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이와 같이 행사진행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은 행사에 의한 경제적 편익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과 향후 개최될 행사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케인즈류의 관광소득승수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행사에 참여한 방문자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숙박형태별 관광소득승수를 파악하여, 향후 개최될 문화행사의 개최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理論 및 先行研究 檢討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행사 또는 축제가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행사가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사회적 긴장감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합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Getz, 1997: 23-34). 그러나 각종 유형의 문화행사가 항상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화행

2)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98년 행사에 법인운영 40억원, 행사비 136.4억원, 운영비 25.7억원, 홍보비 25.2억원, 시설비 127.9억원으로 총 355.3억원이 지출되었고, 수입은 국비 120억원, 지방비 184.2억원, 수익금 214.2억원으로 잉여금이 16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법인운영 35.5억원, 행사비 149.6억원, 운영비 18.1억원, 홍보비 33.6억원, 시설비 67.6억원, 임차료 및 수익사업비 32.7억원으로 총 337.4억원이 지출되었고, 수입은 국비 100.5억원, 지방비 125억원, 수익사업 155.4억원, 이월금 127.9억원으로 총 508.8억원으로 잉여금 171.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182).

사는 경제, 관광 및 상업적, 사회문화, 물리적 환경, 심리적, 정치적으로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Ritchie, 1984: 2-4).

따라서 이러한 문화행사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행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문화행사에 대한 평가는 행사개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Gets, 1997: 352).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행사의 영향 중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관광 및 문화행사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승수분석(multiplier analysis),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등이 사용되고 있다(김사현, 2001: 351; Briassoulis, 1991: 486; Eadington & Redman, 1991: 50; Fletcher, 1989: 515; Kottke, 1988: 122; Mathieson & Wall, 1982: 64-75; Ryan, 1991: 70).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중 산업연관분석 및 관광소득승수분석과 같이 거시적 지표를 이용한 분석방법은 축제 참가자에 대한 소비지출구조와 소비지출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전략수립에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희찬, 2002: 32). 그러나 승수기법이 한계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단기효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고(김사현, 2001: 368), 어떠한 경제분석에서든 분석기법에 대해 비판이 있지만 그 방법론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다(Archer, 1982: 241, 김사현, 2001: 368에서 재인용).

승수모형은 '60년대 이후에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정밀한 이론모형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70년대에 들어 관광부문에 대한 승수연구가 아쳐(Archer, 1977)를 중심으로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 졌는데, 케인즈류 관광승수모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사현, 2001: 353-362; Ryan, 1991: 77-93). 관광자가 지역 내에서 지출한 경비가 해당 지역 경제구조 내에서 乘數倍의 지역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배수를 의미하는 관광승수는 케인즈의 기본승수모형을 식 (1)과 같이 변형시켜 측정한다. 식(1)에서 BC는 고전적 모형의 한계소비성향(MPC)에 해당되며 이것은 관광수입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성향을 의미한다.

$$A \times \frac{1}{1 - BC} \tag{1}$$

- A: 관광객 총 지출 중 현지에서 소득화되는 비율
- B: 현지지출이 지역 소득자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비율
- C: 현지에서 소비된 지출이 그 지역 소득화되는 비율

그리고 케인즈의 소득승수모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식 (1)의 모형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A는 전체 관광경비 중 해당지역에서 소비되는 비율로 $A < 1$ 이 되기 때문에 승수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 (1)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처와 오웬(Archer & Owen, 1971)은 숙박형태별로 부문별 소비지출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식 (2)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티보우(Tiebout)모형을 발전시킨 케인즈류의 관광승수로 영국 웨일즈(North Wales) 지방의 양걸시군(Anglesey County)에 대한 방문객 방문에 따른 승수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sum_{j=1}^n \sum_{i=1}^n Q_j K_{ji} V_i \left\{ \frac{1}{1 - L \sum_{i=1}^n X Z_i V_i} \right\} \tag{2}$$

- i: 소비지출형태별
- j: 관광객 숙박형태별
- Q: 숙박형태별 관광객의 지출비율
- K: 숙박형태별 관광객의 지출형태별 소비지출백분비
- V: 지출항목별 소득발생율
- L: 현지소비성향
- X: 소비지출유형
- Z: 지역주민이 역내에서 소득을 소비하는 비율

식(2)의 모형은 관광객을 호텔 캠핑 민박 등과 같이 숙박형태별로 구분하고 소비지출형태와 가능한 부문별특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에서 관광객의 여러 가지 형태별 특성의 차이를 무시한 식(1)보다 현실성 있는 모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수모형 중 단순모형의 약점을 보완하여 숙박형태 및 부문별 소비지출형태를 고려한 한시적 승수모형(ad hoc multiplier model)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시적 승수모형을 선정한 것은 관광객 숙박형태에 따른 소비지출구조를 반영하고 있어 거시적 경제 지표 이용에 의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관광승수효과 측정에 있어서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에 의한 특정 지역주민의 소득, 고용 및 부에 대한 효과를 밝히는 경제적 효

과에 대한 분석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관광개발 전략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수립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Fleming & Toepper, 1990: 37; Frechtling, 1987: 325). 이러한 점은 유럽과 북미에서 관광이 도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대한 정당성과 경기회복책(pump priming)으로서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yan, 1991: 76). 이와 더불어 문화행사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의 결과는 문화행사에 의한 편익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자체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Ritch, 1984: 5).

이와 같은 유용성을 갖고 있는 관광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대상 지역과 측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 관광자의 유형, 관광시설의 소유주, 도착 노동력의 비율, 현지주민의 소비성향 등과 같은 요소와 측정방법에 따라 관광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Kim & kim 1998: 54).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관광승수가 지역보다 국민경제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보다 국가경제의 경제기반(economic base), 즉 역내 산출과 서비스에서 자급자족의 능력이 크고 유출비율이 적기 때문이다(Mathieson & Wall, 1982: 68).

그리고 관광객의 숙박형태에 따라 관광승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Scotland의 Edinburgh 주변의 Lothian지역에 대한 Vaughan(1977)의 소득승수 측정결과, 당일 이용객의 경우 직접, 간접 및 유발효과에 대한 승수의 합이 0.2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guest-house)은 0.36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텔투숙객들의 소득승수가 캐러반 또는 텐트이용자들과 친지방문자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Mathieson & Wall, 1982: 68-69).

아처의 한시적 모형을 변형시켜 관광의 속초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이미혜(1993) 연구는 전체 숙박업에 관련된 관광소득승수에서 직접효과에 0.58, 간접 1차 효과 0.21, 2차간접효과 0.02로 총 0.81로 나타났으며, 숙박형태별로는 호텔에 0.73, 콘도미니엄 0.99, 여관에 0.68로 나타나 콘도미니엄의 소득승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의 지출부문별 소득승수는 숙박비에 0.64로 가장 높고 속초시에서만 지출된 교통비의 승수가 0.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미혜, 1993: 109-114).

또한 동일한 분석모형을 변형시켜 단양지역 관광자 지출에 따른 소득승수를 추정한 오순환(1998) 연구는 전체 관광소득승수가 0.7이고, 숙박형태별로는 호텔

0.64, 여관 1.20, 유스호스텔 0.57, 민박 1.28 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서 숙박업 중 민박과 여관의 소득승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역외누출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오순환, 1998: 101-104).

이와 같이 승수효과가 지역 및 국가, 이용형태별로 관광승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석기법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 또는 가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Wanhill, 1994: 281).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소득승수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정확성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모형은 관광소비지출의 단기적 경제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경제구조에서 연계성(linkage)이 취약한 점을 밝힐 수 있고, 소득 및 고용 극대화외 외환수지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 확장 필요성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문을 파악할 수 있고, 경제 자극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문을 구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Mathieson & Wall, 1982: 7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방문객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관광소득승수모형을 적용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과 취약한 부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사개최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한 정책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研究方法 및 分析模型

1. 調査方法

문화행사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있어서 정확한 방문자 지출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즉 문화행사 현장에서 지출비용을 조사할 경우 지역 내 다른 관광활동에 의한 지출비용은 예상 지출액이 될 수 있고, 방문자가 귀가한 후 우편 조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가계조사를 할 경우 회상오차(recall 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희찬, 2001: 158). 따라서 지출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방문자가 해당 지역 경계지점에서 시행하는 出口調査가 바람직하다(Gets, 1997: 346).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주지역과 같이 지역에 대한 접근체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어 지역 경계지점에서 방문자에 대해 문화행사 참여 여부

를 파악하여 소비지출을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문자의 예상지출에 의한 과소 또는 과대추정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행사장 출구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소비지출구조를 조사하였다.

방문자들에 대한 조사는 2000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엑스포행사장에서 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방식으로 평일에 200매, 주말에 350매로 나누어 전체 550부를 무작위 임의추출방법으로 하였다. 이 중 설문지를 검색한 결과 423매가 분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 가능한 설문지 중 방문자 소비지출구조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 응답율이 저조하거나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한 283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³⁾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방문자 소비지출구조가 예상지출을 포함하고 있고, 문항 특성상 결측 치가 높다는 점에서 정확한 승수효과 추정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숙박유형별 응답자 구성비를 <표 1>에서 살펴보면, 당일 관광객이 전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반자 수는 평균 1.8인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 구성비

숙박유형	응답자 수(구성 비, %)	동반자 수 (명)
당일	116(41.0)	1.6
호텔	53(18.7)	2.1
콘도/미니엄	33(11.7)	2.3
여관	32(11.3)	1.6
친구/친지 집	27(9.5)	1.7
민박	12(4.2)	1.2
기타	10(3.5)	2.1
계	283(100.0)	평균 1.8

3) 분석 가능한 설문지 423매 중 방문자 소비지출구조에 관련된 문항에 응답한 설문지 수가 283 매에 불과한 것은 예상지출경비를 포함하여, 6개로 구성된 지출항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응답자들의 응답 기피율이 높기 때문이다.

2. 分析模型 設定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의한 관광소득증수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아처와 오웬(Archer & Owen, 1971)에 제시된 식(2)의 모형을 자료획득과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식(3)과 같이 변형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방문자 소비지출형태(i)는 문화행사 참석에 의해 경주지역에서 지출된 숙박비, 식음료비, 쇼핑비, 행사장 입장료, 교통비, 기타 항목에 대한 비율이고, 숙박형태(j)는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친구 또는 친지 집, 민박, 기타 및 당일 형태로 구분한다. 숙박형태별 관광객 지출비율(Q_j)은 방문자의 총 여행경비 중 경주지역에서 지출된 비율을 의미하고, 숙박형태별 관광객 지출형태에 따른 소비지출 백분비(K_{ij})는 숙박형태(i)에 따라 지출항목별 비율이다. 지출항목별 소득발생율(V_i)은 호텔 및 콘도미니엄, 여관, 민박 및 기타 숙박시설과 기념품점, 음식점, 소매점, 기타 등과 같은 지역 업체의 영업 매출액 중 누출율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평균소비성향(L)은 발생소득 중 저축을 제외한 소비지출비율이며, 지역주민이 역내에서 소득을 소비하는 비율(Z)은 저축과 지역의 지출 및 기타 부분을 제외한 역내지출 비율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지출항목별 역내 소득 소비비율(X_i)은 식료품, 교양오락, 개인교통, 기타 등에 대한 지출비율을 의미한다.

$$\sum_{j=1}^n \sum_{i=1}^n Q_j K_{ij} V_i \left\{ \frac{1}{1 - LZ \sum_{i=1}^n X_i V_i} \right\} \quad (3)$$

여기서, i: 소비지출형태별, j: 관광객 숙박형태별, Q: 숙박형태별 관광객의 지출비율, K: 숙박형태별 관광객의 지출형태별 소비지출 백분비, V: 지출항목별 소득발생율, L: 평균소비성향, X: 소비지출유형, Z: 지역주민의 역내 소득 소비비율

식(3)의 좌변($Q_j K_{ij} V_i$)은 식(1)에서 관광객 총 지출 중 현지에서 소득화되는 비율(A)을 의미하고, 우변($LZ \sum_{i=1}^n X_i V_i$)은 케인즈 승수모형의 한계소비성향으로 식(1)에서 BC로 관광소득 증가에 따른 현지 소비증가분을 의미한다.

IV. 分析 및 論議

1. 形態別 消費 및 所得構造

식 (3)과 같은 분석모형에 의한 승수효과 추정을 위해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숙박유형별 (Q_i) 1인당 평균 소비지출구조(K_{ij})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방문자들의 총 여행경비는 평균 58,751.1원으로 나타났고, 총 경비의 94.4%에 해당하는 55,432.3원을 경주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域內에서 지출 비율이 높은 것은 방문객 중 당일 관광객의 비율이 높고, 행사참여를 계기로 단일 목적형태의 관광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숙박형태별 소비지출에서는 호텔 이용자들이 100,429.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당일 관광형태가 26,975.3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숙박형태가 불분명한 기타부문에 대한 소비지출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응답과정에 숙박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 예상지출액을 기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의 소비지출액이 여관 이용자들보다 적은 것은 숙박시설 이용 특성상 가족 및 단체 이용자들의 비율이 높고, 자가 취사 형태가 많아 식음료비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이 절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구조는 식음료비가 전체 지출의 21.5%인 11,934.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쇼핑비 20.6%, 숙박비 19.3% 순으로 나타났다.

행사기간 중 발생한 관광소득의 파악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객 조사 시점과 동일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지역의 관광 및 일반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등의 숙박업체 60개를 선정하여 직접면접 형태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업체는 응답을 회피하는 업체가 많아 임의 추출방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이중 응답이 부실한 18개 업체를 제외한 42개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숙박업체에 대한 조사항목은 <표 3>과 같이 월 평균 매출액에 대한 총 지출 비율과 지출비율을 항목별로 파악하였다.⁴⁾ 분석결과 매출액에 대한 총 지출 비율과 원자재 구입비, 기타부문에 호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업원 인건비는 여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광소득승수 추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업

4) 숙박업 및 사업체에 대한 지출항목별 구성비는 총 매출액 중 종업원 인건비,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세금, 통신료 및 공과금, 기타 등에 대한 구성비의 합이 100.0%가 되도록 한 것임.

〈표 2〉 숙박유형별(Q_j) 1인당 평균 소비지출구조(K_{ij})

지출형태 \ 구분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친구/ 친지 집	민박	기타	당일	전체평균
숙박비	27,017.7 (26.9)	16,269.2 (28.6)	9,706.7 (21.7)	1,333.3 (4.1)	2,142.9 (6.9)	7,857.1 (13.4)	-	10,721.2 (0.193)
식음료비	20,442.5 (20.4)	15,132.7 (26.6)	10,493.3 (23.5)	8,733.3 (26.9)	7,571.4 (24.2)	14,000.0 (23.8)	7,168.4 (26.6)	11,934.5 (0.215)
쇼핑비	11,084.1 (11.0)	4,076.9 (7.2)	5,253.3 (11.8)	4,333.3 (13.3)	4,857.1 (15.6)	9,571.4 (16.3)	3,873.7 (14.4)	11,391.8 (0.206)
입장료	16,283.2 (16.2)	8,876.9 (15.6)	10,160.0 (22.8)	10,266.7 (31.6)	10,071.4 (32.3)	14,476.2 (17.8)	9,252.6 (34.3)	10,769.6 (0.194)
교통비	10,708.0 (10.7)	9,365.4 (16.5)	6,888.0 (15.4)	5,143.3 (15.8)	6,157.1 (19.7)	9,571.4 (16.3)	4,985.8 (18.5)	7,544.4 (0.136)
기타	14,893.8 (14.8)	3,115.4 (5.5)	2,132.0 (4.8)	2,666.7 (8.2)	428.6 (1.4)	7,285.7 (12.4)	1,694.7 (6.3)	4,602.4 (0.083)
계	100,429.2 (100.0)	56,836.5 (100.0)	44,633.3 (100.0)	32,476.7 (100.0)	31,228.6 (100.0)	58,769.9 (100.0)	26,975.3 (100.0)	55,432.3 (100.0)
총 여행경비 숙박형태별 지출비율(Q _j)3)	114,732.9 0.875	70,376.9 0.808	61,074.7 0.731	34,445.6 0.943	36,721.4 0.850	63,714.3 0.922	30,191.6 0.893	58,751.1

주1) 숙박비가 '0'으로 나타난 당일을 제외한 숙박비 평균은 10,721.2원(19.3%)으로 나타남.
 2) 숙박형태별 관광객 지출비율(Q_j)은 전체 여행경비 중 경주지역에서 지출된 비율을 의미함.

종별 漏出率을 파악한 결과, 호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종업원 타지 거주비율과 원자재를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종업원이 域外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소득을 경주지역에서 소비하지 않아 발생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3〉 지역 숙박업별 지출구성비

(단위: %)

구분	매출액에 대한 총 지출	종업원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제세 공과금	기타	종업원 타지 거주비율	원자재 타지 구입비율
호텔 및 콘도(12)	85.4	47.8	24.2	17.2	12.4	31.8	47.2
여관(24)	24.0	68.5	16.9	13.5	1.9	0.0	0.0
민박 및 기타1)6)	41.3	60.0	17.5	17.5	5.0	10.0	0.0

주1) 괄호 안은 조사업체 수를 나타냄.
 2) 숙박업체 중 기타로 분류된 것은 수학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숙박업, 호텔이나 여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유스호스텔 등과 같은 업체를 의미함.
 3) 여관, 민박 및 기타부문의 원자재 타지 구입비율이 0으로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업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이 역내에서 조달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됨.

관광객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기념품점, 음식점 및 소매점, 기타 등에 대해서는 총 140개 업소를 조사하여 127개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사업체별 지출항목을 보면 기념품점이 종업원 인건비 30.0%, 원자재 구입비에는 소매점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누출율과 관련된 종업원 타지 거주비율과 원자재 타지 구입비율은 각각 21.3%, 76.6%로서 소매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경주지역 사업체별로 원자재를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주지역 자체가 제조업이 취약한 지역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4〉 자료를 토대로 지출항목별 소득발생율(V_i)을 구하면 〈표 5〉와 같다.

〈표 4〉 지역 사업체별 지출구성비

(단위: %)

구 분	월 평균 매출액 (만원)	매출액에 대한 총 지출	종업원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세세 공과금	기 타	종업원 타지 거주비율	원자재 타지 구입비율
기념품점(6)	263.3	66.7	30.0	38.3	12.5	29.0	0.0	70.0
음식점(51)	466.6	71.6	18.8	41.2	17.6	18.8	10.2	40.5
소매점(46)	376.8	64.4	22.2	52.9	13.6	18.1	21.3	76.6
기 타1)(24)	422.0	68.9	27.5	48.6	20.0	15.6	18.7	69.5

주1) ()안은 조사업체 수를 나타냄.

2) 조사대상 사업체 중 기타부문으로 분류된 업종은 기념품점, 음식점, 소매점 등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특산물 판매장(토기, 제빵 등)과 같은 업종을 의미함

〈표 5〉 지출항목별 소득 발생율(V_i)

(단위: %)

구 분	누 출 율				소득발생 율
	원 자 재	금 여	세금 및 공과금	계	
호텔 및 콘도미니엄	11.4	15.2	17.2	43.8	56.2
여 관	-	-	13.5	13.5	86.5
민박 및 기타	-	6.0	17.5	23.5	76.5
기념품점	26.8	-	12.5	39.3	60.7
음식점	16.7	1.9	17.6	36.2	63.8
소매점	40.5	4.7	13.6	58.8	41.2
기 타	33.8	5.1	20.0	58.9	41.1

주1) 원자재 누출율은 각 사업체 지출에서 원자재 비율과 다른 지역에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비율을 곱한 값임.

2) 급여부문에 대한 누출율은 각 사업체 지출에서 종업원 급여 비율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 비율을 곱한 값임.

소득발생율을 구하기 위한 누출율은 각 사업체별 지출항목 중 종업원 인건비와 원자재 구입비에 각각 종업원 타지 거주비율과 원자재 타지 구입비율을 곱하여 <표 5>와 같은 누출율을 계산하였다. 사업체 지출 항목별 소득발생율은 전체 지출에서 누출율을 제한 값으로 추정하였다. 사업체별 지출항목에 대한 소득발생율은 숙박업에서 여관이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자재 타지 구입비율과 종업원의 다른 지역거주비율이 높은 호텔과 콘도미니엄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체별로는 역내 원자재 구입비율이 비교적 높은 음식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의 소비지출구조와 지역 내 소비지출유형 (X_i)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성, 연령, 거주지역별로 비례배분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경주시내 각급 학교 학생 7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462매가 회수되었으나, 소득 및 소득의 소비지출구조, 지역 내 소비지출 유형과 관련된 항목에 응답이 부실하거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352매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6> 지역주민의 소비지출구조 및 역내 소비지출 유형(X_i)

(단위: 원, %)

구 분	소비지출구조	구 분	소비지출 유형		
			총 지출에 대한 지출유형	역내지출에 대한 지출유형	총지출에 대한 역내지출 유형별 비율 ¹⁾
① 지역내 지출	979,906.8 (46.8)	주거·광열비	278,708.7 (18.0)	176,294.1	11.4
② 지역외 지출	279,519.3 (13.3)	식료품(외식)	411,047.8 (26.5)	260,003.8	16.8
③ 저축	547,134.1 (26.1)	교양오락	190,554.1 (12.3)	120,532.9	7.8
④ 기타	289,263.7 (13.8)	개인교통	196,934.1 (12.7)	124,568.9	8.0
계	2,095,824.0 (100.0)	쇼핑	243,692.6 (15.7)	154,145.1	10.0
		기타 소비지출	227,752.5 (14.7)	144,062.3	9.3
		총 지출액(계)	1,548,689.9 (100.0)	979,606.8	

주 1) 총 지출에 대한 역내지출유형별 비율은 저축을 제외한 총 지출액 1,548,689.9원에서 지역 내에서 지출한 979,906.8원에 대한 비율 63.3%를 총 지출 유형 비율에 곱한 값임.

설문 문항은 <표 6>과 같이 월평균 총 수입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구 당 총수입에 대한 지출비율, 즉 지역내·외 지출, 저축, 기타 부문에 대한 지출비율의 합이 100.0%가 되도록 응답을 요구하였다. 또한 소비지출유형은 주거·광열비, 식료품비(의식비 포함), 교양오락, 교통비, 쇼핑, 기타 등에 대한 지출비율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당 월 평균 수입은 209만 5,824원이고, 소비지출구조는 전체 소득 중 지역내 소비비율이 46.8%, 저축은 26.1%로 나타났다. 5) 지출유형별로는 식료품비가 전체 지출의 26.5%, 총 지출에 대한 역내 지출 비율에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觀光所得乘數 推定 및 論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의한 지역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 2>의 숙박유형별(Q_i) 1인당 평균 소비지출구조(K_{ij}), <표 5> 지출항목별 소득발생율(V_i), <표 6> 지역주민의 소비지출구조와 지역 내 소비지출유형(X_i)을 아처와 오웬의 한시적 승수모형을 변형시킨 식(3)과 같은 분석모형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지역주민의 평균소비성향은 총 소득 중 저축을 제외한 소비지출 비율을 적용하였고, 지역주민의 역내 소득소비율(Z)은 지출항목 중 지역내 지출 비율 46.8%를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자료를 모형에 적용한 결과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의한 지역 전체 관광소득승수는 0.515로 나타나 관광객 1,000원 지출은 지역에서 515원의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모형과 분석 대상지역 및 자료수집과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미혜(1993)와 오순환(1998)이 아처와 오웬에 의해 작성된 한시적 승수모형을 변형시켜 속초와 단양지역을 대상으로 추정한 관광소득승수가 각각 0.81과 0.7로 나타난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승수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석모형을 다르게 적용하였거나 지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모형은 다르지만 폐쇄모형에 의한 지역산업연관분석 방법으로 경주지역 관광산업의 소득승수를 추정한 결과는 0.5498로 나타나고 있어 한시적 승수모형에 의한 추정결과가 비교적 낮

5) 통계청(www.nso.go.kr)에서 발표한 도시가계연보(2001)에 의하면 2000년 3/4기 우리나라 전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244.3만원, 가계지출은 187.2만원, 평균 소비성향은 73.8%로 나타나고 있다.

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김규호·김사헌, 1998: 166).

한편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행사개최에 의한 방문객 순증가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행사개최 기간인 '99년도 9, 10월과 11월 경주관광객은 1,066,384명으로 나타났고, 6)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전체 방문객 175만명 중 외국인 방문객 13만 4,000명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 161만 6,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증가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행사에 의해 순수하게 증가한 내국인 관광객은 549,616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의한 직접소득효과는 1인당 소비지출액 55,432.3원에 순수 방문객 수를 곱한 304억 6,153만원이고, 관광소득승수 0.515를 곱한 156억 8,769만원의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총 효과는 461억 4,922만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산 337.4억원이 지출된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직접소득효과만을 고려하면 행사개최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문객 지출에 의한 소득파급효과를 반영할 경우 전체적으로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행사개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관광소득승수모형에 의한 분석은 입장객 또는 방문객 지출에 의한 직접효과 외에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숙박유형별 관광소득승수는 여관을 이용한 방문객 지출형태가 0.584로 가장 높고, 기타부문, 호텔, 친구 및 친지 집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콘도미니엄을 이용한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관광소득승수는 0.420으로 당일 방문객 지출에 의한 승수효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숙박형태별로 승수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숙박업별로 소득발생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 발생된 소득의 누출이 적은데 반해 콘도미니엄 및 호텔의 경우 지역에서 소득이 정착되는 비율이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숙박형태별 관광소득승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행사개최 장소와 방법 장소

〈표 7〉 숙박유형별 관광소득승수

6)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기간은 당초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1일간이었으나 수능시험수험생(고 3)을 위한 특별운영기간으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연장하였다. 따라서 방문객 순 증가를 파악하기 위해 '99년 11월 방문객의 1/3을 적용하여 행사기간과 동일한 경주관광객 수는 1,066,384로 계산하였다.

숙박유형별 지출비율 (Q _j)	숙박유형별 소비지출구조 (K _{ij})	지출항목별 소득발생율 (V _i)	평균 소비성향 (L)	주민의 여내 소득소비율 (Z)	주민의 여내 소비 지출유형 (X _i)	부문별 소득증수	
호 텔 0.875	숙박비	0.269	0.562	0.739	0.468	-	0.534
	식음료비	0.204	0.638			0.168	
	쇼핑비	0.110	0.607			0.099	
	행사입장	0.162	0.411			0.078	
	교통비	0.107	0.411			0.080	
기타	0.148	0.412	0.093				
여 관 0.808	숙박비	0.286	0.865	0.739	0.468	-	0.584
	식음료비	0.266	0.638			0.168	
	쇼핑비	0.072	0.607			0.099	
	행사입장	0.156	0.411			0.078	
	교통비	0.165	0.411			0.080	
기타	0.055	0.412	0.093				
콘도미니엄 0.731	숙박비	0.217	0.562	0.739	0.468	-	0.420
	식음료비	0.235	0.638			0.168	
	쇼핑비	0.118	0.607			0.099	
	행사입장	0.228	0.411			0.078	
	교통비	0.154	0.411			0.080	
기타	0.048	0.412	0.093				
친구/친지 집 0.943	숙박비	0.041	0.765	0.739	0.468	-	0.533
	식음료비	0.269	0.638			0.168	
	쇼핑비	0.133	0.607			0.099	
	행사입장	0.316	0.411			0.078	
	교통비	0.158	0.411			0.080	
기타	0.082	0.412	0.093				
민 박 0.850	숙박비	0.069	0.765	0.739	0.468	-	0.489
	식음료비	0.242	0.638			0.168	
	쇼핑비	0.156	0.607			0.099	
	행사입장	0.323	0.411			0.078	
	교통비	0.197	0.411			0.080	
기타	0.014	0.412	0.093				
기 타 0.922	숙박비	0.134	0.765	0.739	0.468	-	0.554
	식음료비	0.238	0.638			0.168	
	쇼핑비	0.163	0.607			0.099	
	행사입장	0.178	0.411			0.078	
	교통비	0.163	0.411			0.080	
기타	0.124	0.412	0.093				
당 일 0.893	숙박비	0.000	-	0.739	0.468	-	0.493
	식음료비	0.266	0.638			0.168	
	쇼핑비	0.144	0.607			0.099	
	행사입장	0.343	0.411			0.078	
	교통비	0.185	0.411			0.080	
기타	0.063	0.412	0.093				

전체관광소득 증수 0.515

에 대해 개선할 점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개최된 행사가 경주시가지와 격리된 보문단지에서 이루어져 도심지역에 관람객 유치에 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⁷⁾ 따라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의해 지역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행사프로그램을 통해 숙박관광객을 유치하고, 시가지 행사 비중을 높여 소비활동이 도심상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숙박형태에 있어서 여관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에 의한 승수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여관 이용자들의 소비활동이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의한 소비지출이 지역내 소득화율이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행사를 도심지 사적지 주변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V. 結論 및 示唆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문화경제학적 관점의 등장과 지방의 특성을 홍보하려는 장소마케팅전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행사 개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는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관광 및 문화행사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은 연구결과가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행사기간 동안 175만명이 방문한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개최될 행사방법에 대해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되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은 아처와 오웬이 작성한 한시적 소득승수모형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방문자, 지역사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지출구조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방문자 조사에서 소비지출구조를 파

7)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보문단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개최되는 행사는 경주시가지에 엑스포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였다(매일신문, 2002. 8. 16).

악하는데 있어서 조사 여건상 예상지출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체 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사업체가 많아 임의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조사결과 행사기간 경주지역 방문자 1인당 지역내 지출액은 총 여행경비의 94.4%인 55,423.3원인데, 숙박형태에서 전체 여행경비 중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이 다른 숙박 형태보다 출발지에서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방문객 지출에 의해 발생된 소득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사업체 조사결과 여관, 민박 및 기타로 분류된 숙박업과 음식점에서 소득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원자를 구입하는 비율과 종업원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한시적 승수모형에 적용하여 관광소득승수를 추정된 결과 전체적으로는 승수가 0.515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로 방문객 지출에 의한 직접효과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승수효과 파악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숙박형태별 관광소득승수는 여관과 기타부문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방문객 지출에 의한 발생 소득의 누출율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행사 개최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생한 소득의 누출이 적은 업체를 중심으로 방문객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행사 개최에 의한 소득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출효과가 적은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러한 곳에서 소비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도심의 사적지와 문화행사를 연계시켜 개최하는 방법이다. 경주지역과 같은 역사문화도시는 도심지에 많은 사적지가 산재해 있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부분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행사진행 기간동안 야간에 사적지를 개방하여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사적지 주변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야간에 사적지를 개방하는 것은 도심지에서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지에 입지하고 있는 숙박업체와 음식점, 기념품점 등과 같은 사업체가 대부

분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종업원 임금 및 원자재 구입에 의한 소득유출이 적어 승수효과가 높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숙박 형태별 승수효과 추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소득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생소득 누출이 적은 지역의 기존 상권에서 방문객 소비지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謝辭 : 이 논문을 완성함에 있어서 초고를 검토해 주신 김사현 교수께 그리고 논문작성에 있어서 필자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여 논문이 일층 개선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참고문헌

- 김규호(2001). 문화행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2000경주세계문화엑스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5(3): 117-130.
- 김규호, 김사현(1998).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관광학연구』, 22(1): 151-171.
- 김사현(2001). 『관광경제학』. 백산출판사.
- 오순환(1998). 관광의 지역경제적 역할과 파급효과: 아드-혹 승수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혜(1993). 관광의 지역경제적 편익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속초시를 사례로 관광소득승수모형을 적용하여.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찬(2002). 축제참여자의 관광지출 결정요인. 『관광학연구』, 26(1): 31-46.
- _____(2001).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 추정방법 연구: 2000 광주비엔날레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25(2): 155-176.
- Briassoulis, Helen(1991). Methodological Issues Tourism Input-Output Analysi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 485~495.
- Eadington, William R. & Redman, Milton(1991). Economics &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 41~56.
- Fayos-Sola, Eduardo(1998). The Impact of Mega Ev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1): 241~245.
- Fleming, William R. & Toepfer, Lorin(1990). Economic Impact Studies: Relat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to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 Research*, 29(1): 35~42.
- Fletcher, John E.(1989). Input-Output Analysis and Tourism Impact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 514~529.
- Frechtling, Douglas C.(1987). Assessing the Impacts of Travel and Tourism -Introduction to Travel Impact Estimation. *in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John Wiley & Sons.
- Gets, Donald(1997). *Event Management & Event Tourism*. Cognizant Communication Corporation.
- Kim, Sah-Hun & Kim, Kyu-Ho(1998). Impact of Tourism on Local Economies: An Income Multiplier Analysi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2):49~56.
- Kneafsey, Moya(2001). Rural Cultural Economy: Tourism and Social Rel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3): 762~783.
- Kottke, Marvin(1988). Estimating Economic Impact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122~133.
- Mathieson, Alistair & Wall, Geoffrey(1982).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Longman Group Ltd.
- Milman, Ady & Pizam, Abraham(1988). Social Impacts of Tourism on Central Florida.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2): 191~204.
- Ritchie, J. R. Brent(1984). Assessing the Impact of Hallmark Events: Conceptual and Research Issu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2(4): 2~11.
- Russo, Antonio Paolo(2002). The "Vicious Circle" of Tourism Development in Heritage Cit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165~182.
- Wanhill, Stephen(1994). The measurement of tourist income multiplier. *Tourism Management*, 15(4). 281~283.

2002년 10월 1일 원고 접수 · 2002년 11월 15일 수정본 접수
2002년 12월 10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특